

불꽃같은 개발자 “김지훈”의 프로필입니다.

	이 름	김지훈	생년월일	1988.10.04 (30세)
	연락처	010-8806-6098		
	이메일	adervise1@gmail.com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Github 주소	https://github.com/adervise1/KimJihun2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	기간	학점	졸업 여부
학점은행제	전자계산학(학사)	사이버대학 (~ 2017.2)	3.41	졸업 예정

경력사항 (2년 8개월)

근무처	담당 업무	근무 기간	최종 직위	기타
리아컴즈	2013.12 ~ 2014.03	4개월	연구원	
오픈메이트	2014.04 ~ 2016.08	2년 4개월	연구원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행처	취득일
정보처리산업기사	산업인력공단	2010.12
전자상거래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	2016.11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기간	역할	내용
웹북뷰어 개발	2013.12 ~ 2014.03	연구원	epub.js 모바일 리더 환경 구축 및 개발
프로젝트 유지보수	2014.04 ~ 2015.03	연구원	고객사 납품 프로젝트 통합 유지보수
LH공사 온나라 포털	2015.03 ~ 2016.02	연구원	LH공사 온나라 부동산 포털 부동산통계 및 빅데이터 개발
오픈메이트 IDC 이전	2016.02 ~ 2016.07	연구원	오픈메이트 IDC 센터 이전으로 인한 DB 및 서비스 변경 반영

Technical Skills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Objective C	패스트캠퍼스 iOS수료	서버인프라	IDC센터 이전 및 신규구축 수행 경험
java / jsp	국비과정 수료 및 프로젝트 수행	DB	DB 쿼리 및 편집 가능
프론트엔드	html, css, jquery 개발 가능	빅데이터	빅데이터 전문과 과정 수료

불꽃같은 개발자 “김지훈”을 소개합니다.

개발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제가 개발을하기로 결심한 첫 계기는 생계와 결혼을 위해서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을 모아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제 성향과 잘 맞고 과거 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떠올리며 IT와 관련된 개발자가 되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JAVA 국비과정의 짧은 경험은 개발에 대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억들을 남겨주었고, 이를 계기로 취업이 되어 개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필요했던 생계를 채울 수 있었고, 결혼 또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개발자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살 처음 학부에 들어갔을 때부터, 군 국기무사령부에서 전산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또한 제가 필요했을 때 국비지원 과정과 IT 분야에 취업하고 나서 제 스스로가 발전하고 성장한 것을 뒤돌아보면, 개발자로서의 대한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계를 넘어서 개발자로서 **더 분명한 목표와 비전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개발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이유와 부가적인 목표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개발 업무와 관련된 경험

1. 리아컴즈 3개월 인턴관정

웹북 뷰어 개발 : 3개월간 epub 이라는 국제표준 e-book 을 Reading 할 수 있는 웹/앱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턴이었지만, 회사에서 개발자가 3명밖에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개발자로서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 먼저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오픈소스들을 찾은 결과, 프론트엔드 쪽은 javascript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백엔드 구성은 mySql 및 Java 및 spring으로 구성된 서버 개발까지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으며, epub 마켓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읽을 수 있게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2. 오픈메이트 2년 5개월 (수행했던 일부 내용이 GitHub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유지보수 : 오픈메이트에서 1년간 데이터 및 웹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유지보수는 고객사의 DB에 회사 데이터를 Truncate 후에 Insert 하고, 프로시저,조인 및 업데이트 쿼리를 통한 데이터 최신화 작업을 하였으며, 고객에 납품되어 있는 백엔드 및 프론트엔드 웹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LH공사 온나라 3.0 프로젝트 : 빅데이터 및 부동산통계 파트개발자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LH공사 프로젝트는 2.0 포털사이트를 3.0으로 고도화하는 1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진주에서 상주를 하면서 개발을 수행하였고, 제가 맡았던 부분의 요구사항으로는 하둡으로 구성된 데이터 수집공간의 마련과 부동산통계 시스템 개발 그리고 관리자 화면 개발이 있었습니다. 리더 개발자와 함께 부동산통계 관리자 화면, 하둡으로 구성된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업무 화면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용 기술로써 관리자 화면은 html, css, jquery, Java, Spring을 빅데이터 플랫폼은 클라우데라 하둡 설치, LH공사에서 필요한 DB데이터를 크롤링 및 Sqoop하기 위한 python 스크립트 등을 사용하였으며, 관련된 산출물 및 문서작업까지 완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메이트 IDC 이전 : 진주프로젝트 마무리 후 본사에 복귀하여 회사 인프라를 재구축 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 IDC센터 통합 및 노후 장비 정리 및 신규장비 구축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IDC 이전업무를 잘 완료 하였습니다. 관련된 업무로는 도메인, 네임서버 및 호스팅 관련 업무부터 하드웨어 인프라 도입 및 신규 인프라(WEB/WAS) 구축, DB 이전으로 인한 DB 데이터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서버 이전으로 인한 개발소스 수정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젠서버를 통한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격과 특징에 대한 소개 (다른 사람이 본 제 모습에 대한 추천서가 GitHub에 있습니다!)

1) 준비성과 계획성

저는 28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흔히 이 말을 하면 제가 금수저가 아닌지 묻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며 부모님께 받은 돈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여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집을 구하는 일부터 혼수,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심지어 예물과 예단에 대한 부모님과 대화의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편적인 사례로 설명했지만, 결혼 뿐 아니라 저는 제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과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2) 낙천주의와 열정

저는 별명이 있습니다. **“불꽃남자”** 입니다. 항상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또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천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제 인생의 좌우명은 **“긍정적으로 살자”** 입니다. 짧은 생을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구구절절이 설명하기 어려운 낙심될 만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회에서 빠тол어지지 않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은 세상을 낙천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커뮤니케이션 능력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반장을 해왔습니다. 짧은 시간의 전문대에서는 과대표를 했으며, 군대에서는 분대장, 그리고 20살부터 현재까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항상 임역원의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핵심을 파악해서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입니다.

하고 싶은 일 & 데이터 개발자가 적성에 맞는 이유

프로그래머로써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기여하는 개발자”** 입니다.

3년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지만, IT에서 처음 실무를 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게 관찰하였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직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관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개발적인 논리를 사용하는 성향을 가진 개발자입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은 데이터 개발자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소양과 더불어, 인문학적인 요소또한 균형있게 잘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머신러닝, 대용량 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개발에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열정을 갖추고, 겸손하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

이것이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며, 세상에 기여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